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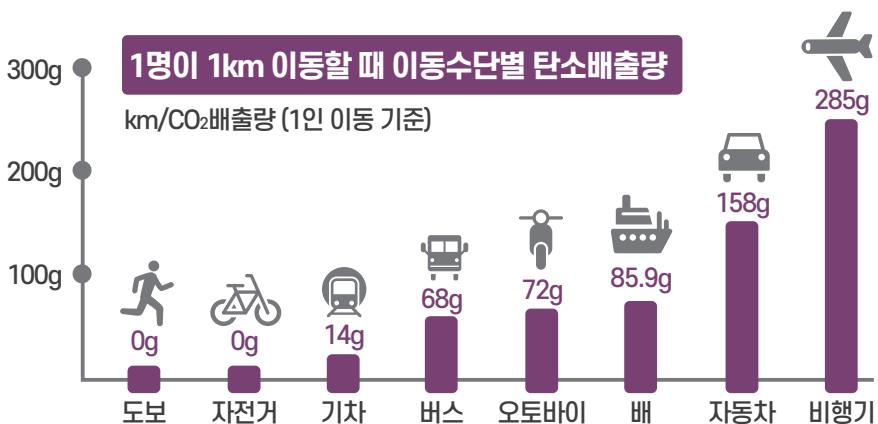


활동지

기후 위기와 기후 행동 **활동지 2-1**

학습주제	함께하는 기후 행동
제 목	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① 다음은 이동 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 내가 등하교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무엇인가?

💬 내가 여행을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함께하는 기후 행동	학습주제
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제 목

②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협약서를 작성해보자.

〈온실가스 줄이기 협약서〉

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을 실천하겠습니다.

-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집과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 태양력 및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
-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 교통 정책을 지지하고 이용하겠습니다. ☐
- 경유, 휘발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습니다. ☐
- 1회용품 사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
- 육식을 줄이겠습니다. ☐
- 친환경농업을 지지하고 지역농산물을 구입하겠습니다. ☐
- 정부와 국회, 지자체장이 긴급한 기후 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정당에 투표하겠습니다. ☐
-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의 물건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

년 월 일

이름 :



※출처: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협약 <https://sign4future.org>



[읽기자료]

... 📖 자전거의 도시



자전거 보유율 세계 1위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1992년 시민 투표를 통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도심 내 많은 자동차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었고, 주차장이 폐쇄되었으며, 주차료를 대폭 인상하여 자동차의 도심 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대신 차량이 이용했던 공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대한 뒤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하였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와 연결된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가 무려 80km에 이른다.

함께하는 기후 행동	학습주제
탄소중립 기후 행동 캠페인	제 목

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의 방법을 4컷 만화로 표현해보자.



학습주제 **함께하는 기후 행동**

제 목 탄소중립 기후 행동 캠페인

② 다음은 A중학교의 환경 캠페인송이다. 모둠원들과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가사로 바꿔 만들어 보자.

Save The Energy1.

정민석·한재윤 작사, 한재윤 작곡

▶ 노래 듣기 bit.ly/SaveTheEnergy1

요즘 날씨 이상해진 것 같지 않나? 더울 땐 폭염 비올 땐 폭우 장난 아냐

몸살 앓는 지구 달래주기 위해 우리 쿨하게 에너지를 아껴볼까

안 쓰는 플러그들은 뽑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세수할 땐 물 받아 쓰고 일회용 컵 말고 내 컵을 쓰면 돼

어디 갈 땐 자가용 말고 BMW 타고 나가

버스 전철 걸기 이게 완전 개념 하이 클래스

I love energy You love energy We save energy 우리 지구를 식혀

I love energy You love energy We save energy 우리 모두를 위해

열 받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고 지구 화내면 우리 정말 큰 일이야

뜨거워진 지구 식혀주기 위해 우리 쿨하게 에너지를 아껴볼까

[illegible]

함께하는 기후 행동	학습주제
탄소중립 기후 행동 캠페인	제 목

③ 기후 행동 캠페인 피켓을 만들어보자.

- ① ‘기후 위기 오다’ 사이트(<http://climate-comes.kr>, 시흥에코센터)에 접속한다.
- ② 다음 순서에 따라 캠페인 피켓을 만든다.



③ 내 주변이나 SNS를 이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읽기자료]

... 미래를 위한 금요일

2018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의 1인 기후 행동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15일, 세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 fridaysforfuture.org)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School strike for climate)를 125개국 2천여 도시에서 진행했고 각 정부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기후 행동도 2019년 부터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환경 학습권과 탈석탄 금융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2,446개 도시의 청소년들은 각 도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기후 행동이 전하는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기후 운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태어나 자라온 우리의 목소리가 제도 정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중략) 우리는 성공한 과학자나 정치인이 된 후에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지금 여기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삼척 맹방해변을 지켜주세요!



BTS의 #butterbeach를 지켜주세요!

BTS<Butter>의 앨범자켓 촬영지,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 K-pop의 빌보드 성지이자 아이들의 포토스팟인 #butterbeach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어요.

왼편엔 석탄발전소, 오른편엔 청정해변?

#butterbeach 바로 옆 맹방 한재밀 해변에 포스코 자회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방파제 공사로 모래가 바다에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방탄도 애정한 아름다운 맹방해변의 풍경과 백사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 황폐하게 변한 백사장과 석탄 연기에 둘러싸인 해변을 BTS의 #butterbeach라 할 수 있을까요?

서명하러가기

방탄소년단(BTS)이 앨범을 촬영한 해변이 석탄발전소 공사로 훼손되자 세계 케이팝 팬들이 환경보호에 나섰다. 케이팝 팬들이 결성한 '케이팝포플래닛'과 '석탄을 넘어서'는 2021년 9월 14일 부터 방탄소년단이 '버터' 앨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강원도 삼척의 맹방해변의 훼손을 막기 위한 '세이프 버터 비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버터' 앨범 촬영지는 현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 운반용 항만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자 모래 이동에 변화가 발생했고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2m에 이르는 모래 절벽이 해변을 따라 형성되면서 해변의 본모습과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후솔루션 단체의 분석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될 경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이 급격히 하락해 건설 원가조차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3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삼척시민 60%가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했다.